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거듭난 사람 II

(요 1:13)

### 이종윤 원로목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 1:13)

#### 2.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 1:13)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약 1:18)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신적 기원이지 인간적 기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귀로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 1:1-2)

옛적에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때로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속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계시의 방법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이단들은 자꾸만 다른 계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그 아들로 말씀하신 것, 곧 신·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주셨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1, 에베소서 1:5, 야고보서 1:18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고백하라”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할수록 하나님은 자꾸 높아지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

혜입니다.

#### 결론

세상을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부딪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과도 부딪치고 이웃과도 화평을 못 이루고 직장에 가서도 웬지 편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환경을 탓하거나 이웃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대인 관계는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결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위로만 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높은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악마와는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끼리는 화평을 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말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감는데 영혼의 눈은 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주의 성령이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로, 매일 봉사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혼자만 좋다고 앉아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봉사할 기회를 찾아서 정성껏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선교전략은 Burning Heart, 펄펄 끓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전략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넷째로, 전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봉사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의 4대 요소입니다. 개인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4가지 요소가 반드시 같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전도하고 있습니까?



# 1회용 컵 사용을 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종이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버려지는 1회용 종이컵이 1000여개에 육박합니다.

1회용컵은 구입하는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자연을 오염시키고 환경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게다가 웨스트민스터홀에도 1회용컵을 들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혼란해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기본 질서를 저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비단 교회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엄청난 쓰레기의 양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일회용품들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페플라스틱, 페비닐, 무차별적인 벌목으로 자연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부터 주일 1회용컵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에바다부 수련회를 마치고

## 장애인 선교의 교두보 에바다부



박혜옥 집사 (에바다부 교사)

8월 15일 에바다부 수련회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속에 교회 102호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교회 회복의 일꾼으로 또 앞으로 장애인선교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맡을 에바다부의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서명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날을 기다릴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와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주신 서울교회와 대한민국을 격랑속에서도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길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회복의 때를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또 성경퀴즈를 통해서 비록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몇 년째 농인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의 부재로 농인에게 맞춤설교가 주어질 수 없어 이해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자라는

믿음을 볼 수 있어 감사하였습니다.

또 저희를 점점 더 복음과 사랑으로 단단한 공동체로 되게 하여주시길 주님을 믿으며 수련회를 감사함으로 마쳤습니다.

서울교회와 에바다부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주시길 주님을 믿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의로움으로 의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되기를 희망합니다.

로비에서, 예배당에서 어깨 두드리주시고 손 잡아주시는 성도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에바다부는 든든히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교회가 다시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회복될 때 에바다부도 다시 굳건하게 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지키기 힘들어도 주님 손에 쓰임 받는 에바다부가 되기 위해 김진달 부장님, 조미영 부감님 이하 저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좇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감우균·김연화 박창호·송민정 윤종현1 안승민  
성춘모·정희자 이주현7·이주영 김현영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8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8월 18일: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 8월 25일: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 예약상담 :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 12(토) 오후 1시



Bus



Metro



Walking

B.M.W. 운동





#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케냐는 지금 겨울입니다. 난방시설이 없는 이곳은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하며 가끔은 전기장판에 의지합니다. 벌써 2학기를 마무리하고 남은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자 스텝들과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기도하며 찾고 있는 학교 장소는 3곳으로 좁혀져 막바지 결정에 이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조건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욱 집중기도와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올 한해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큰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와 후원자를 통하여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후 케냐로 귀국하여 쉬지 못하고 지속된 사역으로 일주일간 심한 감기몸살로 아파 소식을 바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잘 회복되어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나이로비에서 8시간 떨어진 키수무, 까파메가 지역 아마니 방과 후 음악학교 3곳과 비히가지역 교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리더쉽을 위한 교육을 위해 2일간 종일 프로그램으로 단기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음악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 더욱 간절한 상황이었습니. 나이로비에서 스쿨밴에 키보드와 기타 6대, 사파 120개, 그곳에서 식사 준비할 먹을 것과 각종 수업 장비들을 싣고 새벽 6시부터 함께 출발한 9명 스텝과 현지 2명 교사, 저희 부부와 함께 13명의 스텝들이 비히가초등학교 40명, 데니스고등학교 40명, 비히가지역 청년과 성인들 16명 등 총 96명을 대상으로 음악교육과 오후엔 체육회를 하며 빵과 우유로 간식과 음료로 좋은 교제와 교육으로 다같이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 교육으로 아쉬움은 많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지만 나이로비에서 많은 스텝이 3박 4일간 교육을 위해 여러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교재와 숙식, 인건비, 교통비 등 만만치 않은 예산으로 부담이 되어 지속적인 사역으로 해야 할 지 큰 기도제목을 갖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8월 13일 어제는 아마니 음악학교에 속해 있는 8개 지역 방과후 음악학교와 2개 합창단, 리더쉽 컬리지 학생들 21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모여 열

선물을 줄 수 있었고 일년에 한번이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음료수를 한병씩 입에 물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하는 운동회인데도 질서정연하게 아무 사고 없이 선생님들의 수고와 여러 스텝들의 도움으로 정말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케냐는 9월 2일부터 11월말까지 3학기가 시작됩니다. 400여 명의 아마니 학생들도 각자 학교에서 수업하며 방과후 음악교육을 계속 받고 졸업반 학생들은 10월, 11월에 있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준비합니다. 마사이지역 에세키학교 310명의 학생에게도 계속 급식을 지원합니다. 식당이 따로 없어 콩과 옥수수로 만든 점심을 받아 땅바닥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먹습니다. 먼지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마니 장학생 90여 명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인에 맞게 장학금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편부모에 많은 형제들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 나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들이 더 교육을 받고 대학 졸업 후 취직하여 이 가정을 살릴 수 있기에 더욱 기도하며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음악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더 많은 사역지와 비전을 가진 현지 학생들, 헬퍼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품고 사역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케냐에서  
김낙형·오정녀 선교사 올림



학교 운동장을 빌려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멀리서는 버스를 대절해서, 또는 1시간을 걸어서 한자리에 모인 아마니 식구들은 마냥 흥분과 긴장된 모습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여 몸풀기 체조, 훌라후프, 경기로는 학교별 배구, 축구대항으로 처음 해 보는 운동회라 실수연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서로 물어보며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밤하는 스텝마마가 센터에서 200명분의 밥을 준비하고 또 분배해서 먹느라 정신을 쏙 빼었고 많은 수고가 있었으며 마지막 하이라이트 각 학교별 릴레이로 끝을 장식하며 그 동안 서울교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기증받고 후원 받은 여러 물건들을 잘 모아냈던 덕분에 학용품, 가방, 모자, 티셔츠, 머리핀, 손톱깎기 등 전체 아이들에게 푸짐히



- ① 체육대회 준비운동
- ② 체육대회를 마치고
- ③ 에세키학교 점심시간
- ④ 키수무 비히가교회 찬양세미나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 나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정서현  
(고등부 부회장)

“나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라는 주제로 7월 25일-27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수영 활동과 체육대회 등 신나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장마 기간이라 날씨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활동할 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프로그램은 성경공부에 집중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수련회 중에서 가장 쉬는 시간이 부족해서 육체적으로 조금은 힘든 수련회였지만 만약 쉬는 시간이 많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핸드폰 하느라 그 시간들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입시로 인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성경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중 찬양제와 성극활동이 있었는데 다 같이 찬양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직접 연기하고 발표하면서 더욱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는 여전히 학원 때문에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동정

- 전시: 15교구 전광영 집사  
『Kwang Young Chun: Aggregations』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2019. 8. 24-2020. 6.7
- 금주의 식사: 이강진 장로 송미령 권사 가정  
김동준 성도 이신혜 성도 가정  
이신영 성도 이신재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담다리살조림, 무우생채
- 지난 주 후무사자주 제공: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 가정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와 기도회에 열심을 다하여 참석하여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에 합심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3.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내외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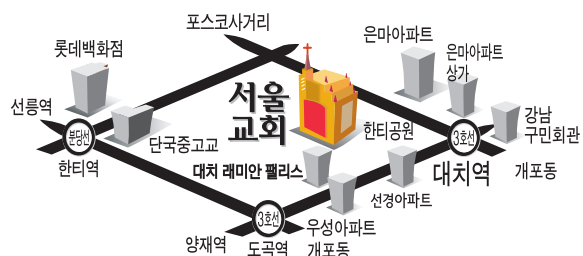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8월19일	월	렘 39-42		왕상 1-4	
8월20일	화	렘 43-47		왕상 5-9	
8월21일	수	렘 48-49		왕상 10-14	
8월22일	목	렘 50-51		왕상 15-20	
8월23일	금	렘 52, 애 1-2		왕상 21-22, 왕하 1-4	
8월24일	토	애 3-5		왕하 5-9	
8월25일	주일	겔 1-4		왕하 10-16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